

## '치유·회복적 정의' 구현 위한 역할 모색

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 
11일 국회서 창립기념 심포지엄

입력 2022-11-07 15:19:34, 수정 2022-11-07 23:49:01

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(이사장 김용덕 전 대법관)은 오는 11일 '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, 회복적 정의'를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 이 재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 사법 기구 수장을 지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(ICC) 소장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.

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선 송 전 소장이 'ICC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, 평화 그리고 인권'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.

재단 관계자는 "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의와 평화, 인권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